

중앙고, 효천고에 9회 재역전... 8강



〈대회 5일째〉

'서울 야구 명문' 중앙고가 '전남대표' 효천고를 꺾고 8강에 직행했다. 청주기공과 상원고도 8강행 막차에 합류했고, 올 대통령배 준우승팀 서울고는 '서울 라이벌' 장충고를 만나 대회 첫 콜드게임패의 수모를 당했다.

중앙고는 15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계속된 제 14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효천고와의 대회 5일째 16강전에서 4-3으로 1점차, 진압승을 거뒀다.

청주기공 4-2 공주고

청주기공은 2회 선두타자 김준용의 중전 안타와 조상철의 희생 번트로 1사 2루를 만든 뒤 7번 김병찬의 우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냈다.

3회에 공주고에 1점을 내준 청주기공은 5회 1사 만루 찬스에서 김준용의 내야땅볼로 1점을 얻은 뒤 후속타자 조상철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6회에도 김기백의 볼넷과 노수광의 내야안타로 만든 1사 1, 3루서 상대 수비 실책으로

장충고, 서울고에 대회 첫 콜드승
청주기공·대구 상원고도 8강 합류

1점을 더 달아냈다.

Table with 2 columns: Team, Score. 청주기공 010 021 000 - 4, 공주고 001 001 000 - 2

중앙고 4-3 효천고

중앙고는 2회 1사 1, 2루서 신호성의 우중간을 깨꿨는 3루타로 먼저 2점을 얻었다.

이에 효천고는 3회말 1사 2루서 채은성의 2루타로 1점을 만회한 뒤 계속된 2사 2루서 진명호의 우전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4회에선 1사 3루 박상규 타석때 상대 투수의 폭투로 1점을 얻어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통 강호' 중앙고의 뒷심은 강했다. 중앙고는 3-4로 뒤진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2점을 추가, 재역전했다.

Table with 2 columns: Team, Score. 중앙고 020 000 002 - 4, 효천고 002 100 000 - 3

제주관광고 0-3 상원고

노히트 노런 투수를 보유한 양팀은 5회까지 치열한 투수전으로 맞붙었다.

그러나 6회말 대구 상원고가 '0'의 균형을 깨다. 상원고는 6회 바뀐 상대투수 김수완을 상대로 2사 2루서 박효일의 중월 2루타로 1점을 얻어냈다. 8회에는 1사 2, 3루서 박효일의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Table with 2 columns: Team, Score. 제주관광고 000 000 000 - 0, 대구상원고 000 001 02x - 3

서울고 0-10 장충고

올 대통령배 준우승 팀 서울고는 '서울 라이벌' 장충고를 만나 '고양이 앞에 쥐'가 됐다.

1회에만 대거 3점을 뽑아낸 장충고는 6회까지 장단 13안타를 터트리며 모두 10득점을 올렸다. 반면 서울고는 4안타의 빈타에 그쳤다. 서울고의 대회 첫 콜드게임 패.

Table with 2 columns: Team, Score. 서울고 000 000 xxx - 0, 장충고 300 403 xxx - 10

오늘의 무등기 야구

8강전
광주일고-제물포고(10시)
유신고-동성고(12시30분)
청주기공-중앙고(15시)
대구상원고-장충고(17시30분)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14일 경기

동성고 4-2 선린인터넷고
0-2로 뒤진 8회 동성고는 볼넷 3개로 2사 만루를 만든 뒤 대타 문동욱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계속된 2사 1, 3루 득점찬스에서 상대 투수의 폭투로 역전했다.
동성고는 9회에도 2사 후 볼넷과 이상원의 내야안타때 상대 수비의 약송구를 틈타 1점을 더 추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경기

Table with 2 columns: Team, Score. 동성고 000 000 031 - 4, 선린인터넷고 000 002 000 - 2



"우린 노히트노런 멤버"

'우린 노히트 노런 멤버!'
지난 13일 안산공고를 상대로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김민석(19·대구상원고 3년·왼쪽)과 한국 고교야구 15년만에 노히트 노런(no-hit no-run)의 대기록을 달성한 김수완(18·제주관광산업고)이 무등기 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김민석과 김수완은 15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계속된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구상원고와 제주관광산업고의 16강전에서 적수로 맞섰다. 이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경기에서 김수완은 중간

대구상원고 김민석-제주관광고 김수완
김민석은 피로누적으로 벤치를 지켜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전 운동장에서 만난 이들은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 기쁘다"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자"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김수완은 지난 4월 26일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 1차전에서 순천효천고를 상대로 몸에 맞은 볼 1개만 내주고 안타와 볼넷 없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쳐 고교 야구 15년만에 14번째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이 됐다. 김민석은 지난 13일 제 14회 무등기 대회 안산공고와의 1차전에서 9이닝동안 볼넷 2개만 내주는 완벽투로 15번째 노히트 노런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 서울 중앙고와 순천효천고의 경기. 9회말 2사 1루에서 순천 효천고 박효석 타석때 1루 주자 이지훈이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20 월드컵 참가 태극전사 확정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에 도전할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15일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1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200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참가할 23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포토타임 행사를 가졌다.

대회 최종엔트리는 21명(골키퍼 3명 포함)이지만 조동현 청소년대표팀 감독은 "부상 대비와 선수단 내 긴장감 유지 등을 위해 2명 추가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팀을 이끌고 17일 오후 출국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체코, 캐나다와 평가전을 가진 뒤 26일 최종엔트리 21명과 함께 대회 조별리그를 치를 몬트리올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이달 초 열린 부산 컵 국제대회 참가 멤버 24명 중에서 부상 치료 중인 수비수 박정혜(송실대)만 제외됐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다.
일본 J-리그 소속의 박종진(제프 지바)과 배승진(요코하마FC)을 포함해 프로 출신이 15명이나 된다. 공격수 신영록(수원)과 미드필더 박종진은 2005년 네덜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FIFA U-20 월드컵 참가 청소년대표 명단

△GK = 조수혁(건국대) 김진현(동국대) 이진형(단국대) △DF = 김동석(서울) 최철순(전북) 배승진(요코하마FC) 안현식(연세대) △MF = 신광훈(포항) 기성용(이정용 송진형(이상 서울) 이현승(전북) 정경호(경남) 박종진(제프 지바) 박주호(송실대) 박현범(연세대) 김민균(명지대) 김성준(홍익대) △FW = 이상호(울산) 이상재(포항) 신영록 하태균(이상 수원) 심영성(제주)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훈(광주 비아중) 금메달

KBS전국육상경기대회

나훈(광주 비아중)이 제35회 KBS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훈은 15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중 높이뛰기에서 1m89cm를 뛰어 1위를 차지했다.
박종현·권준호·최수창·장승진(이상 봉주초)는 남초 400m계주에서 51초91로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104위... 컷오프 위기

PGA US오픈 챔피언십 1R

첫 메이저대회 우승에 나선 '완도 탱크' 최경주(37·나이카골프)가 오클라호마주립대의 험난한 코스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경주는 15일(이하 한국시간) 펜실베이

황현태(전남체중)는 남중 200m에서 22초 21로 금메달을 따냈고, 신승호(전남체중)는 남중 800m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또 남중 장대높이뛰기에서 출전한 김환성(전남체중)은 4m를 넘어 역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승진(광주 봉주초)은 남초 800m에서 2분16초75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으며 남중 높이뛰기에서 이승호(전남체중)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니아주 피츠버그 근교 오클라호마주립대(파 70·7천230야드)에서 개막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107회 US오픈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오버와 77타를 쳐 공동 104위까지 밀려났다.
바디는 단 1개도 없었고 보기 3개에 더블 보기 2개가 겹친 최경주는 2라운드에서 3타 가량 줄이지 않으면 컷오프 위기에 몰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6일(토)

- ▲메이저리그(뉴욕M-뉴욕Y)(07 : 55·Xports)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비씨카드 클래식 2R(12 : 50·Xports)
▲전국대학배구 하계대회 개계전(조선대-한양대)(12 : 50·SBS스포츠)
▲MBC골프투어 2차대회 2R(13 : 00·MBC ESPN)
▲제4회 KBC남여골프대회(13 : 10·KBC)
▲코리아오픈 탁구 단식 8강(14 : 50·SBS스포츠)
▲K리그(광주 상무-대전 시티즌)(14 : 55·MBC)
▲프로야구(LG-KIA)(16 : 50·SBS스포츠), <현대-삼성>(16 : 4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소프트뱅크-요미우리)(18 : 00·MBC ESPN)
▲U-17 8개국 청소년 친선축구(한국-브라질)(19 : 50·SBS스포츠)

17일(일)

- ▲월그리드 배구 2차전(퀀란트-대한민국)(00 : 30·KBSN Sports)
▲US오픈 골프 3R(03 : 00·MBC ESPN, 04 : 00·KBC)
▲메이저리그(시애틀-휴스턴)(07 : 55·Xports)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비씨카드 클래식 FR(12 : 20·Xports)
▲MBC골프투어 2차대회 최종R(12 : 30·MBC ESPN)
▲프로야구(현대-삼성)(13 : 30·KBSN Sports), <LG-KIA>(13 : 50·SBS스포츠), <한화-롯데>(14 : 30·MBC ESPN)
▲광주광역시 협회장재 불링대회(15 : 05·MBC)
▲일본 프로야구(소프트뱅크-요미우리)(18 : 00·MBC ESPN)
▲K-리그(성남 일화-대구 FC)(18 : 40·KBSN Sports)
18일(월)
▲US 오픈골프 최종R(03 : 00·MBC ESPN)